

濟州道 支石墓研究(I)

-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 支石墓群 -

李 清 圭*

目 次	
I. 序	IV. 編年
II. 調査内容 및 形態分類	V. 光令里 支石墓群의 性格
III. 出土遺物	VI. 結

I. 序

우리나라 先史時代 무덤 중 대표적인 것은 支石墓로서 咸北地方을 제외한 韓半島 全域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全南地方의 경우 발견된 숫자만해도 6,000 기초 넘어 전국적으로 볼 때 적어도 10,000 기초 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전체를 보면 中國 山東省·浙江省·遼寧省과 日本 九州地方 그리고 東南亞 지역에도 일부 분포되어 있으나 그 분포의 중심은 한반도에 있으므로 일찍부터 學界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중 濟州道地方에 있어 支石墓研究로는 1959년 金哲垓이 濟州市 呑羅洞·龍潭洞一帶의 支石墓群을 조사한 것을 시초로,¹⁾ 宋錫範,²⁾ 崔夢龍³⁾의 연구가

* 人文大學 史學科 專任講師

- 1) 金哲垓, “濟州道支石墓調査報告”, 『서울大 論文集(人文社會)』 9, 1959, pp. 67 ~ 104.
- 2) 代表的인 것으로 ① 宋錫範, “支石群의 分布狀況·支石群의 遺跡狀況”, 『濟州道文化財 및 遺跡綜合調査報告書』, 1973, pp. 383 ~ 400. ② 宋錫範, “濟州島의 支石墓”, 『考古學ジャーナル』 No. 161, 1979, pp. 20 ~ 22.
- 3) 崔夢龍, “郭支里 支石墓 踏査報告”, 『서울大 文理大學報』 14, 1967, pp. 253 ~ 256.

있었지만 正式 發掘調査를 거친 것은 數基에 불과하고 全道的인 分布確認과 編年作業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濟州道에는 60餘基가 분포하고, 그 형태 혹은 구조에 있어 한반도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지석묘가 있어 濟州道型이라 불려도 좋을 형식이 있으나 대체로 南方式支石墓에 속하며 전체 한반도 지석묘중 末期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九州地方 支石墓와 관련이 있다고 어렵 못하게 추정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筆者는 濟州道支石墓의 型式과 編年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한단계 나아가 同支石墓築造人의 社會的性格을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함으로써 濟州道 歷史黎明期 研究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全道 支石墓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말했듯이 1959년 金哲竣의 조사 이후 지금까지 정식 학술적 發掘調査가 없었으며 그러면서 기왕에 報告된 支石墓조차 여러 이유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이다. 이는 支石墓가 우리나라 部族國家 혹은 族長社會 (Chiefdom Society) 段階의 支配層의 무덤으로서 이에 대한 考古學的 解明이 역사어명기의 社會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認識이 부족하며 한편으로는 傳統文化財에 대한 理解도가 낮은 데도 기인하는 것이다.

학술적 조사를 거침이 없이 암암리 파괴·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濟州道 先史遺跡·遺物研究에 시급한 것중의 하나가 支石墓調査라 생각하고, 비록 여건상 정식발굴조사가 어렵다 할지라도 최대한의 確認調査作業을 하지는 것이 筆者의 意圖이다.

우선 그 첫단계로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一帶의 支石墓群을 조사하였다.

光令里支石墓群에 대해서는 金哲竣·宋錫範의 간단한 報告文⁴⁾이 있으나 正式報告된 것은 2~3基이며 20基가 있다고 할 뿐이었다.

光令里一帶에 支石墓가 分布한 地域은 대체로 해발 90~60 m의 너른 丘陵地帶로서 해발 1,169 m의 한라산 어승생오름 西便에서 起源한 外都川이 그 東쪽 沿邊을 지나고 있다. 支石墓가 위치한 곳은 전부가 밭 경작지로서 그중

4) 前掲報文(1), (2)①.

반이상은 발사이 경계인 돌담에 묻혀 있어 얼른 발견하기 힘들다. 이 일대는 정확히 光令里와 濟州市 外都洞의 接境區域으로 일부의 支石墓는 行政區域上 外都洞에 속하는 것도 있으나, 편의상 光令里支石墓群에 함께 넣어 서술하고자 한다.

II. 調查內容 및 形態分類

支石墓調查에서 기본적인 것은 埋葬施設의 파악에 있으며 다음은 支石의 고임方式과 形態에 대한 조사이다. 이 중 전자는 發掘調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實相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埋葬部가 地下에 있는 甬方式 혹은 蓋石式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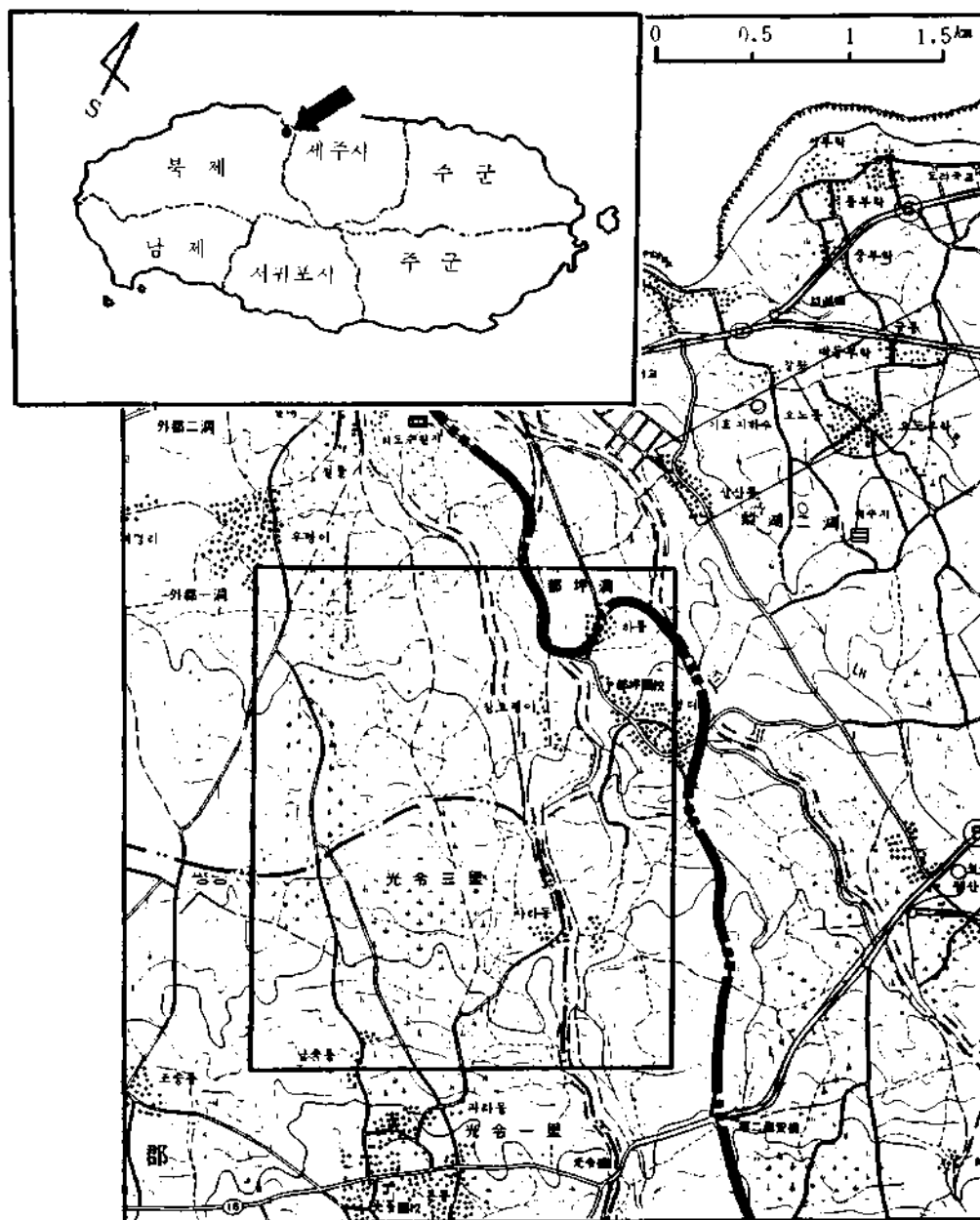
따라서 발굴을 수반하지 못한 筆者의 調査는 이점에 있어 약점이 있으나 濟州道 支石墓의 경우 상당수가 埋葬部가 地上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보이므로 오히려 이 문제를 다소나마 가볍게 해주고 있다.

埋葬施設과 支石의 確認調查 이외에는 上石의 크기·形態와 長軸方向 및 性穴(Cup-mark)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光令里支石墓를 몇개의 類型으로 分類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外觀上 形態에 의한 분류로 정식 型式分類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그것은 濟州道 全域에 걸쳐 보다 정확하고 많은 支石墓調查가 集成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의 形態분류는 보완·수정을 요하는 型式分類의 試論的 性格을 갖는 것이라 하겠다. 수습된 出土遺物 특히 土器는 編年의 標識로서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따로 章을 내어 서술하겠다.

1. 調查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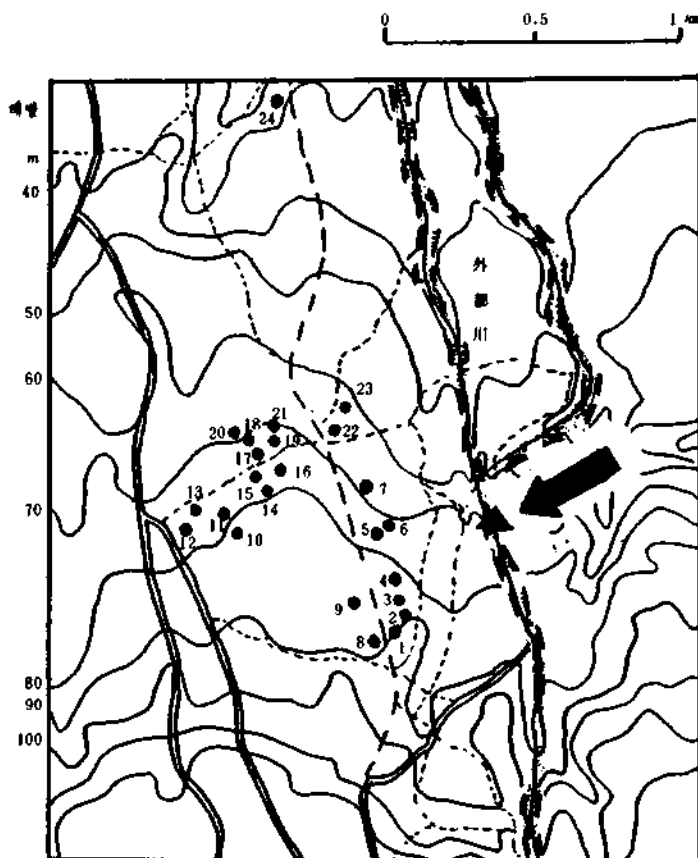
第1號 支石墓

* 支石墓번호는 圖1과 圖2 참조. 支石墓 사진은 p. 43 이하 참조.



〈圖1〉 光令遺跡 位置圖

(□안이 내세워진 無文土器 및 支石墓 分布지역임)



〈圖 2〉 光舍里 支石墓 分布圖 (✓표는 당시 採石場)

평평한 밭 한쪽에 위치하며, 上石은 불규칙한 모양에 길이 230cm, 폭 218cm, 두께 66cm로 다소 작은 편에 속하고 장축은 N 10 W를 가리키고 있다. 支石은 南·北·西쪽의 세 귀퉁이에 고여 있는데, 精製되지 않은 작은 막돌 數個로 구성되었으며, 上石下面이 埋葬部 上面의 積石部와 닿아 있어 埋葬部는 地下에 있는 南方式으로 추정된다. 上石의 南東쪽 귀퉁이 윗면에 性穴 1個가 확인되었다.

第 2 號 支石墓⁵⁾

1號 支石墓 아래밭 한가운데 있으며 上石은 길이 361cm 폭 302cm 두께 40cm로 이 일대 支石墓中 큰 편에 속한다. 대체로 불규칙한 삼각형을 하고 있으며 장축은 N30W를 가리키고 있다. 支石은 南·南西·東쪽에 고여 있는데 남서쪽 것은 높이 56cm, 폭 67cm, 두께 18cm의 잘 다듬은 長方形 板石으로 곧추 세워져 있다. 다른 두 곳은 납작둥그스런 塊石과 割石으로 고여 있으며, 支石과 上石의 틈사이에는 작은 돌이 끼워져 있다. 따라서 上石은 南西쪽이 높게 들려 있어 埋葬部가 西쪽으로 개방된 모습을 하고 있다. 上石下部에 퇴적된 表土를 제거하니 바로 岩盤이 노출될 뿐, 埋葬施設로 이용했음직한 石槨 혹은 土壙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第 2 號 支石墓의 경우 屍身이 놓인 埋葬部는 地上일 가능성이 크며 일단 支石墓施設이 築造되고 나서 上石下 열려진 서쪽으로 屍身을 들이민 다음 지금은 없어졌지만 막음돌로 폐쇄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식 發掘 調査에 의한 것이 아니라 斷言할 수 없지만, 다음에 볼 22號 支石墓도 上石 한 쪽이 높이 들려 埋葬部가 공개되고 9號 支石墓 경우는 막음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큼직한 돌들이 確認된 바 있다.

한편 上石 윗면에 북동쪽으로 치우쳐 직경 12cm, 길이 9.5cm의 큼직하고 뚜렷한 性穴이 6개 확인되었다.

第 3 號 支石墓

이 支石墓는 N 10 E의 장축 방향으로 놓인 길이 315cm, 폭 234cm, 두께 78cm의 비교적 고른 두께에 윗면이 평평한 長方形 上石을 갖고 있으며, 그 上石의 남쪽에 길이 110cm, 폭 55cm, 두께 19cm의 큼직한 板石이 수평으로 받치고 있고 上石의 북쪽주위를 돌아가면서는 자갈한 割石이 支石 役翻을 하고 있다.

5) 前掲報文(2)①의 B地區 第 4 號 支石墓에 해당.

上石과 남쪽의 板石形 支石이 물리는 곳의 上石下段은 一部 깨어내어 서로 맞물리게 하였고 上石下面은 地下 埋葬部와 닿아 있다.

支石 上面에는 磨滅이 심한 17 개의 性穴이 보이고 있다.

第4號 支石墓

3號 支石墓가 놓인 밭의 꼬트머리에 아래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현재 2m 높이의 급격한 경사면 중간에 걸쳐 있는 支石墓로서 吾羅洞 4號 支石墓⁶⁾처럼 上石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잘 다듬은 板石形 支石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形式이다.

원래 이 支石墓가 놓여 있는 위치는 완만한 傾斜面을 이루었을 것이나 耕作地 造成時 윗밭과 아래밭을 각각 평평하게 고르느라 2m 정도의 높이가 차이 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上石과 남쪽 支石이 윗밭 耕作土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고 북쪽 측면만이 노출되어 있는데 원래는 上石은 물론이고 支石과 埋葬部도 地上에 완전히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上石과 板石形 支石으로 이루어진 石室內部的 바닥면과, 外部의 表土層下에 드러난 土層이 同一한 레벨을 이루며 동시에 같은 黃褐色粘土層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上石은 길이 250 cm, 폭 205 cm, 두께 55 cm로 비교적 고르게 다듬은 長方形으로 장축은 정확하게 正南北을 가리키고 있다. 이 長方形의 上石 가장자리를 따라 板石形 支石이 고여 있으므로 支石으로 이루어진 石室 또한 長方形을 이루게 된다. 支石은 전부 높이 70~80 cm, 폭 55~60 cm, 두께 8~13cm로 잘 다듬은 長方形 板石으로 東·西·南에 똑같이 각 3枚가 서로 맞물리면서 고여 있고, 北쪽은 현재 支石 없이 개방되어 있다. 이것은 일단 支石墓施設을 완성하고 이 북편으로 屍身을 들어밀고 난 후에야 支石을 꺾워 맞추었기 때문에 쉽게 逸脫된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며, 吾羅洞 4號 支石墓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6) 前掲報文(1). 이하 吾羅洞·龍潭洞 支石墓에 대한 것은 이 報文 參照.

支石墓 내부를 정리하면서 多數의 無文土器片과 金海式土器片을 수습하였으며, 그 出土位置가 대체로 支石 근처임은 다른 支石墓경우도 마찬가지이다.

性穴은 上石 北쪽에 1개가 희미하게 확인되었다.

第 5 號 支石墓

비교적 두툼하나 작은 편에 속하는 上石에 3개의 큼직한 塊石狀의 支石이 고인 形態로 현재는 上石이 다소 젖혀지면서 原位置에서 밀려나 支石 하나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길이 166 cm, 폭 135 cm, 두께 71 cm가 上石의 크기이며, 上石 下部에 크고 널찍한 1枚의 板石이 노출되고 있다. 埋葬部는 확실하지 않으나 뚜껑 역할을 하는 이 板石 밑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上石 윗면에 크고 두툼한 性穴이 거의 일렬로 8개가 배치되어 있다.

第 6 號 支石墓

이 支石墓는 上石이 작고 모양이 일정치 않으며 받흙에 깊게 매립되어서인지 支石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식 발굴조사에 의해 支石墓 與否를 가릴 필요가 있다. 上石의 크기는 길이 168 cm, 폭 130 cm, 두께 60 ~ 70 cm이고, 북동쪽에 치우쳐 5개의 두툼한 性穴이 보인다.

第 7 號 支石墓

높낮이가 다른 두 발 사이 경계에 돌무더기와 잡초로 덮혀 있었으며 원래는 윗발에 있다가 현재의 경사진 경계로 밀려서 자리 이동한 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원래의 上石 下部施設은 확인될 수 없고 支石도 보이지 않는다.

上石은 대체로 方形을 이루며 길이 175 cm, 두께 45 cm만이 확인되었다.

第 8 號 支石墓

높이가 다른 西高東低의 발사이 급한 경사면에 쓰러져 있으며, 돌무더기와 잡

초를 제거해 보니 서쪽 높은 발쪽에 支石으로 보이는 2枚의 板石과 1枚의 塊石이 노출되었다. 이 밖에도 數枚의 支石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確認하지 못하였다. 上石은 길이 232 cm, 폭 130 cm, 두께 54 cm로 윗면이 평평하고 두께가 고른편이며 평면형태가 비교적 잘 다듬어진 사다리꼴로서 남쪽 가장자리에 3개의 性穴이 있다. 上石의 서쪽 측면에는 1條의 긴 홈줄이 확인되었다.

板石狀의 支石은 각각 폭 34 cm, 48 cm, 높이 53 cm, 40 cm, 두께 6 cm, 8 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第9號 支石墓

다소 완만한 경사의 草地 한가운데 있으며 發見當時 雜木과 돌로 덮혀 있고 다만 上石下部側面이 일부 노출되었을 뿐이었다. 上石은 길이 255 cm, 폭 178 cm, 두께 65 cm로 얼핏 거북등모양을 연상케 하며 장축은 N20 W를 가리킨다. 東·西·南쪽에 數枚의 작은 割石으로 된 支石이 고여 있고 지대가 낮은 북쪽으로 上石이 다소 들려 있었으며, 이곳에 큼직한 割石 3枚와 數枚의 雜石으로 막아 있었다.

이 막음돌을 치운다면, 屍身 埋葬部 北쪽 前面이 外部에 완전 공개, 노출되므로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이러한 막음돌이 築造 당시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막음돌을 빼내고 内部의 黑褐色 浮土를 걷어내면서 數點의 無文土器片과 金海式土器片 1點을 수습하였는데, 대부분 支石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浮土層을 걷어내니 바로 평평한 黃褐色粘土層이 확인되었다. 이 支石墓인 경우 이 黃褐色層이 바로 生土인지 아니면 그 아래 地下埋葬部가 있었는지 혹은 半地下式인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나 현 단계로서는 生土層으로 보이며 따라서 地上에 埋葬部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性穴은 발견되지 않았다.

第10號 支石墓

밭 한가운데 평평한 곳에 위치하며 上石의 크기가 길이 369 cm, 폭 276 cm, 두

개 77 cm로 光命里一帶 支石墓중 가장 크며 그 평면은 대체로 6각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支石墓와 마찬가지로 上石下部 세귀통이에 支石을 고였는데 특이한 것은 다소 지면이 높은 동쪽에 작은 돌이 접접히 고여 있고 다른 두 곳 북서쪽과 남서쪽에는 각각 높이 114 cm, 폭 65 cm, 두께 25 cm, 높이 118 cm, 폭 91 cm, 두께 27 cm의 잘 다듬고 큼직한 板石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이 板石狀의 支石과 맞물리는 上石下面은 손질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이곳 13호 支石墓와 龍潭洞 支石墓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支石은 높은 지면에 닿는 동쪽으로 두껍고, 板石狀의 支石이 고이는 서쪽으로는 얇아져 이 쪽으로 埋葬部가 완전히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上石下部에 堆積된 浮土를 걷어 내니 남쪽에 치우쳐 屍身의 머리를 놓기에 적당한 평평하고 납작한 板石이 노출되었다. 이 板石이 놓인 면은 黃褐色粘土層上으로 비교적 단단한 편이며 遺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레벨은 現地表面보다 다소 낮은 편이나 支石墓 築造 당시의 舊地表面으로 보는 것이無理없으며, 따라서 屍身은 地上에 놓이거나 적어도 半地下인 形式으로 推定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베갯돌(?)이 분명하다면 그 위치로 보아 頭向 혹은 枕向은 남쪽이며 대체로 上石의 長軸方向과 일치됨을 알 수 있겠다.

性穴은 上石 동쪽편에 3개가 발견되었다.

第 11 號 支石墓

이 支石墓는 다음 12號와 마찬가지로 上石이 완전히 세로로 쪼개지고 支石과 埋葬部가 파괴되어 上石만이 支石墓의 存在를 확인해 주는 예이다. 그래서 혹시 支石墓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上石은 길이 203 cm, 폭 135 cm, 두께 55 cm이고 性穴이 없다.

第 12 號 支石墓

밭사이 등담에 큰 板石狀 上石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이다. 길이 223 cm, 폭 140 cm, 두께 36 cm로 支石과 埋葬部가 확인되지 않고 上石에 性穴도 보이지 않는다.

第13號 支石墓

길과 발사이 돌담에 위치한 支石墓로 上石의 윗면은 가운데가 다소 우묵하나 평평하고, 半破되었지만 전체모양은 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上石의 長軸方向은 정확히 南北을 가리키고 있다. 地表面은 남쪽이 높은 경사면을 이룬데다, 上石 또한 남쪽이 두꺼워 거의 支石없이 地面에 놓여 있고, 동쪽과 서쪽에 각기 3매 및 1매의 板石狀 支石이 고여 있다.

북쪽은 支石없이 열려져 있으나 처음 이 支石墓를 발견할 당시에 $53 \times 43 \times 47$ cm의 塊石으로 막아 있었다.

서편의 支石은 길이 90 cm, 높이 47 cm, 두께 21 cm의 두꺼운 長方形板石이며 이 支石과 물리는 上石下面 가장자리는 움푹하게 패여 있다. 동편은 길이 53 cm, 높이 49 cm, 두께 9 cm와 길이 48 cm, 높이 43 cm, 두께 10 cm의 두개의 사다리꼴 板石과 길이 100 cm, 높이 61 cm, 두께 20 cm의 둥글납작한 한개의 塊石 등 모두 3개의 支石이 있다.

上石 下部에는 雜石이 黑褐色 埋立土에 혼입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는 흑사발 고르다 치운 돌일지도 모르나, 원래부터 埋葬部를 덮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橫石混土層을 제거하니 現地表와 비슷한 레벨에서 비교적 단단한 黃褐色 粘土層이 노출되고, 屍身을 安置하기 위한 목적으로 깔았을지도 모를 20~40 cm 크기인 5枚의 板石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거의 上石長軸과 거의 같은 方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이 板石上의 黑褐色 混土中에서 土器底部完形 1점, 비교적 잘 다듬은 長方形 甬돌 1점, 土製紡錘車 1점이 일괄로 발견되었고, 그밖에도 支石 안쪽 가까이에서 多數의 土器片이 수습되었다.

上石 윗면의 性穴은 북서쪽에 치우쳐 35개가 확인되었는데 磨滅이 심하다.

第14號 支石墓

역시 돌담에 위치하며 上石은 半으로 조각져 경사면에 쓰러져 있다. 支石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 支石墓는 耕作地造成時 밭 한가운데에 있던 것을 밀어낸 것으로 보인다. 上石은 원래 長方形의 모를 죽인 바둑판 모양으로 길이 261 cm, 폭 165 cm, 두께 45 cm이고 평평한 윗면에 마멸이 심한 62 개의 性穴이 뚝뚝히 들어서 있다.

第 15 號 支石墓

돌담에 위치하며 雜草·雜木·돌무더기에 덮혀 있던 支石墓이다. 대체로 長方形의 平面을 갖는 上石은 길이 214 cm, 폭 123 cm, 두께 62 cm의 크기를 갖고 長軸은 예외적으로 東西方向을 가리키고 있다. 上石 동남쪽에 치우쳐 2 개의 性穴이 희미하게 보이며, 上石下部는 돌무더기와 흙이 심하게 매립되어 있어 확인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일부 노출된 양상을 보면 다소 작은 돌로 된 支石이 支石을 받치고 있고, 埋葬部는 地下에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第 16 號 支石墓

비교적 평평한 곳에 돌담으로 덮혀 있었으며 上石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길이 243 cm, 폭 187 cm, 두께 45 cm 정도로 평평한 上石 윗면에는 마멸이 심한 55 개의 性穴이 확인되었다.

長軸은 거의 정남북에 가까운 N10 E이며 흙에 상당한 부분이 매몰되어 支石의 確認이 곤란하여 外觀上 蓋石式처럼 보이는 支石墓이다. 今後 發掘調査가 절실히 요구된다.

第 17 號 支石墓

15 號 支石墓 역시 돌담에 묻혀 있었다. 上石은 길이 232 cm, 폭 198 cm, 두께 89 cm이며 장축은 N50 E를 가리킨다.

上石의 비교적 고른 윗면 북동쪽에 치우쳐 비교적 크고 선명한 65 개의 무수한 性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일대 支石墓중 최대의 숫자를 보이는 것이다. 上石下部는 북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上石의 동·서쪽 귀

통이와 매몰된 남쪽에 支石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대가 높은 남쪽은 3개의 작은 돌로, 동·서쪽은 1개의 큼직한 돌로 고였는데 확실치 않으나, 上石下部의 地面狀態로 보아, 이 경우도 埋葬部가 地下에 있으리라 생각하기 곤란하다.

第 18 號 支石墓

높이 차가 심한 두발 사이 돌담에 깊게 묻혀 있어 上石의 전면노출작업이 곤란하였다. 일부 확인한 바로는 上石의 단면이 穹窿狀 혹은 아아치모양을 이루면서 埋葬部가 공개되고 있어 다음에 볼 第 23 號 支石墓와 흡사하다.

上石은 길이 252 cm, 두께 37 ~ 15 cm이고 N35 E가 장축방향이며 性穴은 上面이 노출된 부분에 11개가 발견되었다. 支石은 돌담에 매립되어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上石下部地面에는 혹시 埋葬部施設에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30 ~ 40 cm의 塊石이 8枚가 놓여 있었는데, 그 配列이 一定치 않아 原狀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第 19 號 支石墓

18號와 같은 돌담 비탈에 上石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다. 支石·埋葬部는 확인되지 않고 性穴도 보이지 않는다.

上石은 길이 232 cm, 폭 171 cm, 두께 37 cm이다.

第 20 號 支石墓

돌출된 岩盤層을 이용하여 上石을 고였으며, 한쪽은 높이 치켜지고 그 반대편은 거의 地表面에 닿아 있는 테다 넓직한 支石이 고여 있는 형식이다. 높이 치켜진 부분에는 현재 支石이 없으나 원래 支石이 끼어 있었음을 上石 가장자리 아랫면에 그 흔적이 있어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支石을 고이고 上石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 順이었기 때문에 逸脫이 쉬워 후대에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上石 下部의 地盤은 岩盤이므로 埋葬部가 地下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上石은 길이 315 cm, 폭 265 cm, 두께 60 cm이며 장축은 N 40 E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N 60 W 방향으로 埋葬部가 열려 있다. 上石 남동쪽에 치우쳐 4개의 性穴이 보인다.

第 21 號 支石墓

돌담에 위치하며 上石은 길이 295 cm, 폭 220 cm, 두께 30 ~ 40 cm로 長軸은 N 60 E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東南쪽으로 두께가 얇고 그 반대편은 두꺼워 넓적한 支石으로 고이거나 거의 地表에 닿아 있는 상태이다. 支石은 서남편과 북편에 하나씩 있고 上石이 두꺼워진 북서편은 바로 지표면에 놓여 있고 上石 下部中央에 작은 돌 몇개가 받치고 있다.

대체로 埋葬施設은 地下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금후의 발굴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문제이다.

性穴은 上石의 정남방향에 8개가 뚜렷하며 배열은 일정치 않다.

第 22 號 支石墓⁷⁾

南高北低의 경사가 심한 岩盤을 이용, 높은 곳 두군데에 각기 둥글납작한 塊石과 割石 1枚씩을 고이고 北쪽의 낮은 곳에 높이 82 cm, 폭 53 cm, 두께 12 ~ 15 cm 정도의 長方形 板石을 支石으로 세웠다.

上石은 길이 275 cm, 폭 230 cm, 두께 80 cm로 두께가 고르고 윗면이 평평한 5각형이며 정남북에 가까운 N 10 E 방향의 長軸을 하고 있다. 上石 下部에 매립된 흙을 제거하나 다소 움푹한 地盤이 나타나나 이를 土壙으로 보기에선 규모가 작고 不定形이어서 곤란하다. 이 支石墓는 북쪽이 높이 들려 있어 雨天時 住民들의 피난처로 안성마춤이고 따라서 上石下部는 後代에 變形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근처 土層과 비교할 때 이도 역시 地上 또는 적어도 半地

7) 前掲報文 (2)①의 B地區 第1號 支石墓에 해당. 前掲報文 (1)의 外都里 支石墓에 해당.

下埋葬일 가능성이 있다.

性穴은 上石 윗면 북쪽구석으로 4 개가 보인다.

第 23 號 支石墓

돌담에 묻혀 있었으며, 완만한 경사면에 위치한다. 上石은 장축이 정남북방향이고 길이 282 cm, 폭 190 cm, 두께 30 ~ 40 cm의 크기를 갖고 있다.

上石은 단면이 아치모양을 이루면서 두께가 얇은 正東쪽으로 下部가 원하게 뚫려 있었으며 따라서 下部施設의 확인이 용이하였다. 바닥정리를 하니 土器片들이 주로 支石근처에서 수습되었고 가운데에서도 일부 출토되었다. 黑褐色埋土를 제거하니 역시 평평한 黃褐色粘土層이 노출되고 土壙 혹은 石槨施設로 인정할 만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支石은 남쪽과 북쪽끝에 둥글납작한 塊石 各 1枚가 있고 서편으로 上石이 두터워서 거의 地面과 닿아 있는 곳은 돌아가며 3枚의 작고 얇은 板石狀 割石이 고여 있었다.

性穴은 上石 남서쪽에 1 개가 보인다.

第 24 號 支石墓

이 支石墓는 1 ~ 23 號 支石墓와는 동떨어진 해발 30 m 정도의 外都 1 洞에 위치한다. 밭 한귀퉁이에 있으며 上石은 대체로 윗면이 평평하고 長方形을 이루고 있는데 길이 204 cm, 폭 134 cm, 두께 77 cm로서 육중하게 보인다. 장축은 N45 E 방향이고 性穴은 없다.

支石은 밭에 깊이 매몰되어 있어 완전한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2 개가 보이며, 上石下에 일부 積石部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보이고 있다.

2. 形態分類

韓半島 全城에 걸친 支石墓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그 型式分類案과 先

後關係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屍身을安置한 埋葬部가 地下에 있고 上石을 4枚의 板石狀 支石이 고이는 탁자모양의 北方式, 埋葬部가 地下에 있고 큼직한 上石을 塊石狀 支石 數個가 고인 바둑판 모양의 南方式, 그리고 支石 없이 板石狀의 上石이 地上에 놓이고 地下에 埋葬部가 있는 蓋石式으로 3區分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의견이 공통된다.⁸⁾ 그중 濟州道 支石墓에 대해서는 金哲俊이 龍潭洞·吾羅洞 支石墓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南方式 이외에 濟州道型이라고 불러도 좋을 특수한 型式이 있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특수형이 北方式(卓子式), 南方式(墓盤式), 蓋石式의 三大分類中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學者들간에 意見を 달리하고 있다.

우선 金哲俊은 여기 光令里 2號·10號와 비슷한 吾羅洞 1號, 龍潭洞 4號 支石墓는 南北方型折衝式으로 南·北方式의 영향을 모두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본다.⁹⁾

한편, 林炳泰는 金哲俊이 調査한 支石墓中 龍潭洞 1號를 제외한 全 支石墓를 卓子式의 一變形으로 보며¹⁰⁾ 金元龍은 이 濟州道 支石墓와 비슷한 예가 江原道 春川에도 있다 하고 이를 變形南式支石墓로 파악하고 있다.¹¹⁾

또한, 崔夢龍은 吾羅洞 4號·龍潭洞 2號(이 두 支石墓는 光令里 4號와 同一形式임)를 원래는 上石만이 地上에 노출된 蓋石式으로 보고 있으며¹²⁾ 任世權은

8) 이에 대한 諸論文은 다음의 論文 ①에 잘 紹介되어 있으므로 따로 言及하지 않겠으며, 이곳에서는 그 以後에 發表된 主要 論文만을 열거하겠다.

① 崔夢龍, “全南地方所在 支石墓의 型式과 分類”, 『歷史學報』78, 1978, pp. 1~50.

② 석광준, “우리나라 서북지방 고인돌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7, 1979, pp. 109~182.

③ 池健吉, “東北아시아 支石墓의 型式學的 考察”, 『韓國考古學報』12, 1982, pp. 245~261.

④ 沈奉濬, “青銅器時代 墓制 I : 支石墓”, 『韓國史論』13, 1983, pp. 195~229.

9) 前掲報文 ①.

10) 林炳泰, “韓國 支石墓의 形式 및 年代問題”, 『史叢』9, 1964, pp. 94~127.

11) 金元龍, “春川泉田里의 支石墓·積石塚”, 『美術資料』4, 1961, p. 15.

12) 前掲論文 18) ①.

이와는 대조적으로 墓室이 地上에 있는 地上形(任世權의 分類에 의하면 이외에 地下形과 들린形이 구분되고 있고 각각 北方式, 南方式, 蓋石式에 比定된다)으로 파악한다.¹³⁾

다음, 沈奉謹은 同支石墓를 碁盤式 支石墓로 파악하는 등, 韓半島 支石墓中 이처럼 학자마다 다르게 觀察하고 形式分類하는 예도 없다. 이는 濟州道 支石墓가 갖는 특이한 구조때문이나 한편으로는 同支石墓의 성격에 대한 불충분한 理解와 各者의 形式分類에 애매한 점이 있는 데도 연유한다.

하여튼 濟州道 支石墓가 특이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아예 金秉模는 韓半島 全支石墓의 3 大分類 形式에 濟州道式을 하나의 큰 분류(北方式·濟州道式·全南式)로 내세우고 있으며,¹⁴⁾ 池健吉은 비록 北方式·南方式 2 大分類中 後者의 큰 범주에 넣고 있으나 따로이 濟州形을 區分하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 全 濟州道內 支石墓에 대해 비록 正式發掘調査는 못하나 가능한 범위에서 形態 및 構造調査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整理, 分類함으로써 全 韓半島 支石墓中 濟州道가 점유하는 型式上的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一次的으로 光令里 支石墓群에 국한한 것이지만 試論的인 形態分類를 하고 今後 이를 다시 道內 他地域 支石墓와 綜合, 比較함으로써 타당한 型式分類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支石墓 型式 또는 形態分類에 있어서 일차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학자마다 틀리나 대체로 ① 埋葬部의 位置(地上 혹은 地下) ② 支石 有無 ③ 埋葬施設의 構造 ④ 支石 形態 혹은 고임方式임에는 공통적이다. 이를 영두에 두고 한편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光令里 支石墓에 대한 形態分類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추후 道內 타지역 지석묘조사결과와 비교, 검토, 보완된 후에야 型式으로서 확정되어질 수 있다.

13) 任世權, “韓半島 고인돌의 綜合的 檢討”, 『白山學報』20, 1976, pp. 67 ~ 120.

14) 金秉模, “韓國 巨石文化 源流에 관한 研究 (1)”, 『韓國考古學報』10·11, 1981, pp. 55 ~ 78.

15) 前掲論文 (8) ③.

① 支石이 確認 안되고 板石狀의 上石이 地表에 놓인 地下埋葬의 蓋石式 支石墓 ~ 第 6 (?) · 15 (?) · 16 號

② 크기가 작은 割石 혹은 塊石狀의 支石이 3~4 군데 고여 있고 上石이 거의 地表에 놓여 埋葬部가 地下에 있음을 알게 하는 支石墓 ~ 第 1 · 3 · 5 · 24 號

③ 支石은 위와 비슷하나 上石이 아아치모양의 斷面을 이루거나, 한쪽으로 두께가 얇아져 半地下 혹은 地上의 埋葬部가 外部에 공개된 支石墓. 屍身을 이 열린 入口로 밀어넣고 籬石 등으로 폐쇄했던 것으로 推定됨 ~ 第 9 · 17 · 18 21 · 23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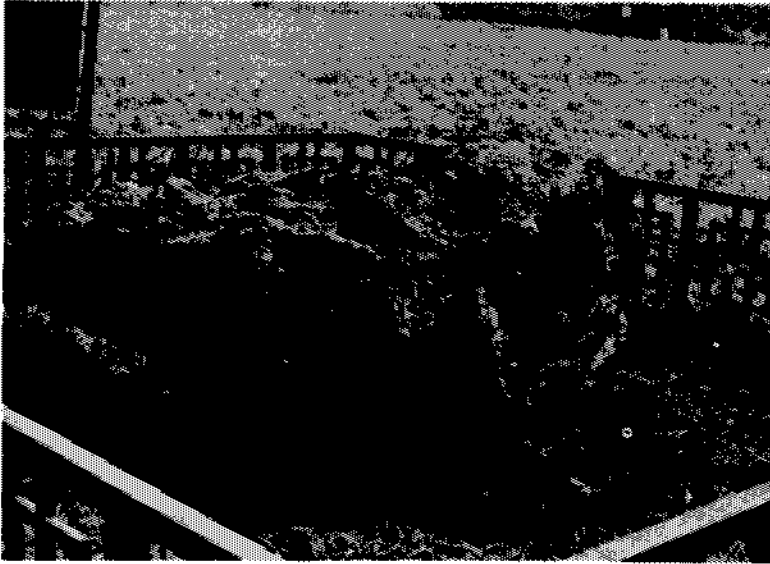
④ 上石의 한쪽은 높은 비탈면을 이용하여 낮게 고이고 다른 한쪽은 板石모양의 支石으로 높게 들린 支石墓. 埋葬部는 地上일 가능성이 많음 ~ 第 2 · 8 (?) · 20 · 22 號

⑤ 上石의 한 쪽은 塊石狀 支石으로 낮게 고이고 다른 쪽 두 곳에 板石을 이용하여 고인 支石墓. 地上에 埋葬部를 둠 ~ 第 10 號

⑥ 비탈면의 높은 쪽은 낮게 고이고 그외는 數枚의 板石狀 支石으로 上石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고인 支石墓. 埋葬方式 역시 地上 橫穴式으로 入口는 돌로 막음 ~ 第 13 號

⑦ 方形 上石의 한쪽을 제외하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정교하게 다듬은 9枚의 板石으로 고인 支石墓. 支石이 빠진 곳으로 屍身을 地上埋葬하고 入口를 폐쇄함 ~ 第 4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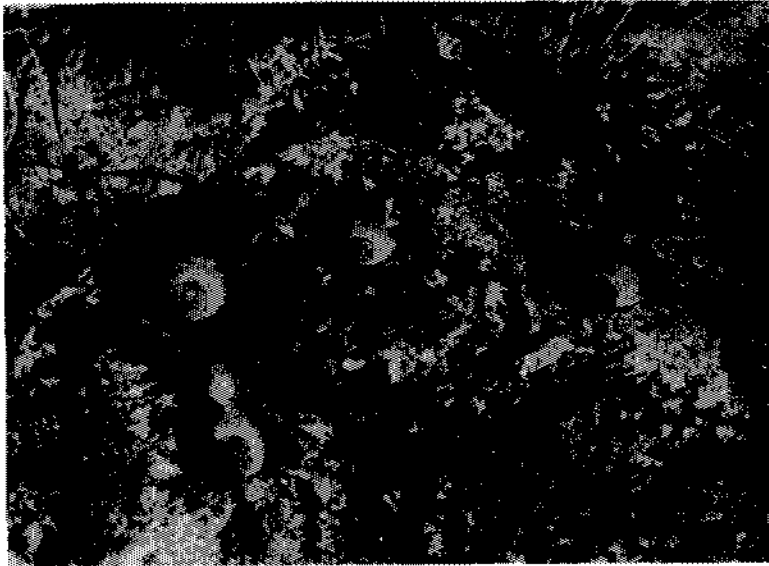
이를 보면 ① ②의 경우는 地下埋葬의 전형적 南方式 혹은 蓋石式이고 ③ ~ ⑦은 半地下 혹은 地上埋葬에 橫穴式 매장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濟州道 特有의 形式이며, 육자부에 이와 비슷한 형식의 支石墓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금후의 과제이다. 그리고 대체로 위에 보듯이 7 種類로 구분되는 支石墓 形態의 時期的 先後關係에 대해서는 編年の 標識가 될 만한 遺物이 확인이 안되므



第1號 支石墓 (南西쪽에서)



第2號 支石墓 (北西쪽에서)



第2號 支石墓 性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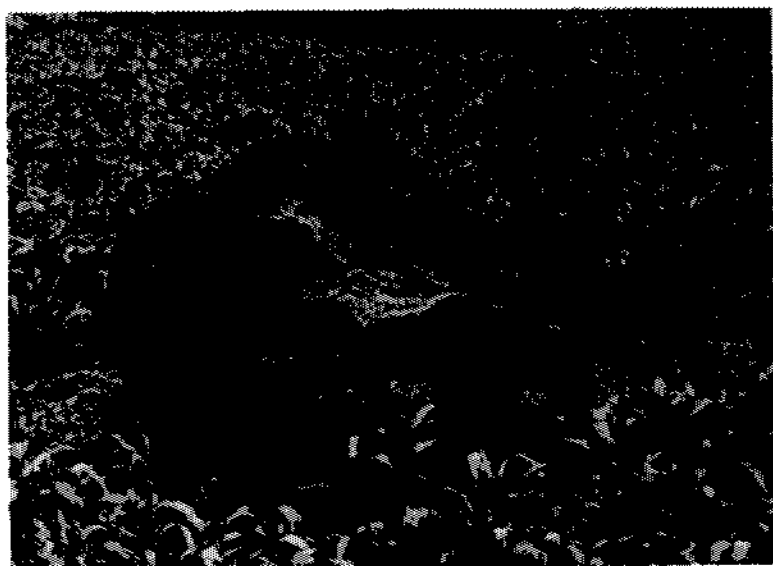
第3號 支石墓 (南東쪽에서)



第4號 支石墓 (北西쪽에서)



第5號 支石墓 (北쪽에서)



第6號 支石墓(東쪽에서)



第7號 支石墓(北쪽에서)



第8號 支石墓(北東쪽에서)



第8號 支石墓 上石側面(西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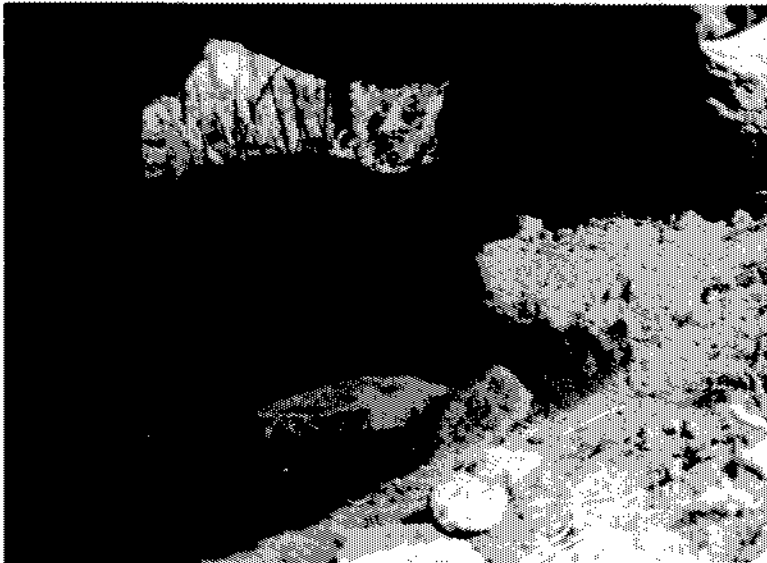
第9號 支石墓 (막음돌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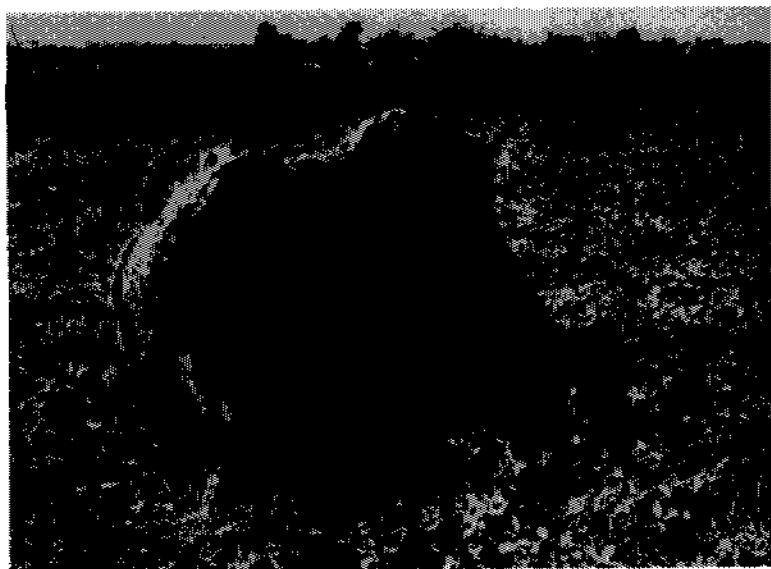
第9號 支石墓 (北쪽에서)



第10號 支石墓(北西쪽에서)



第10號 支石墓 上石下部(北西쪽에서)



第11號 支石墓(南西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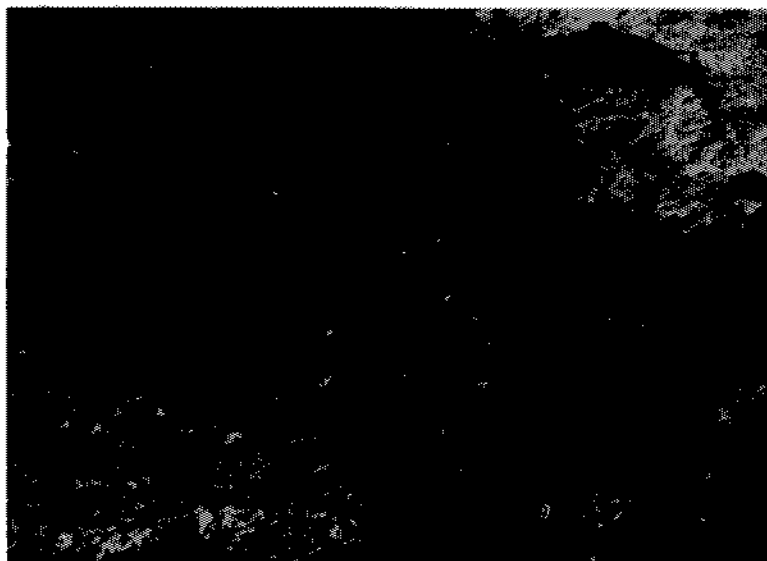
第12號 支石墓(北西쪽에서)



第13號 支石墓 (北쪽에서)



第13號 支石墓 (西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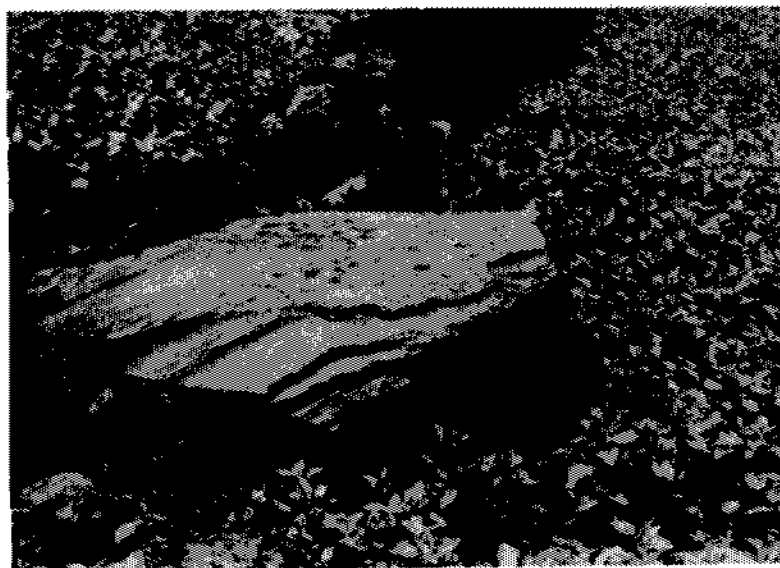
第13號 支石墓 性穴



第14號 支石墓(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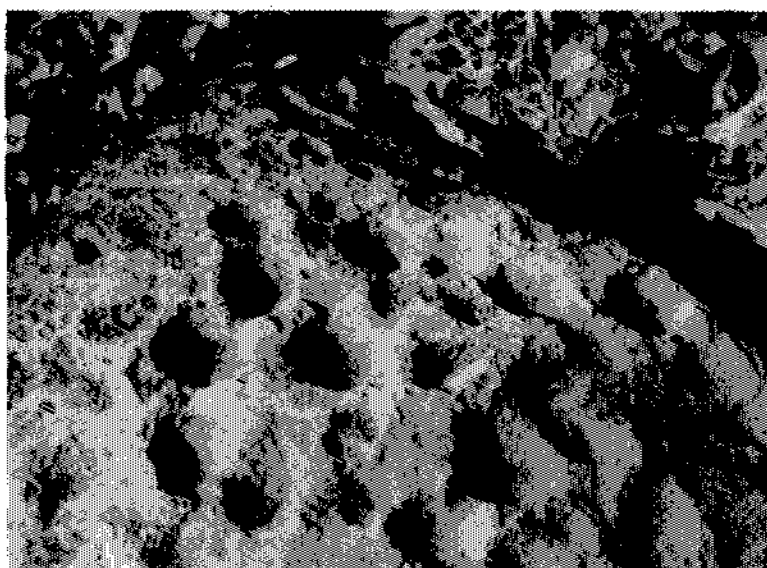
第15號 支石墓(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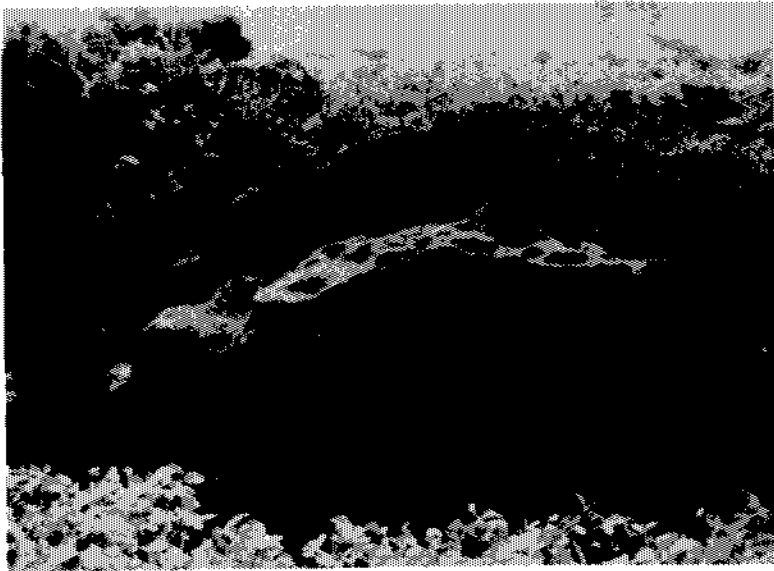
第16號 支石墓(北쪽에서)



第17號 支石墓(北쪽에서)



第17號 支石墓 性穴



第18號 支石墓(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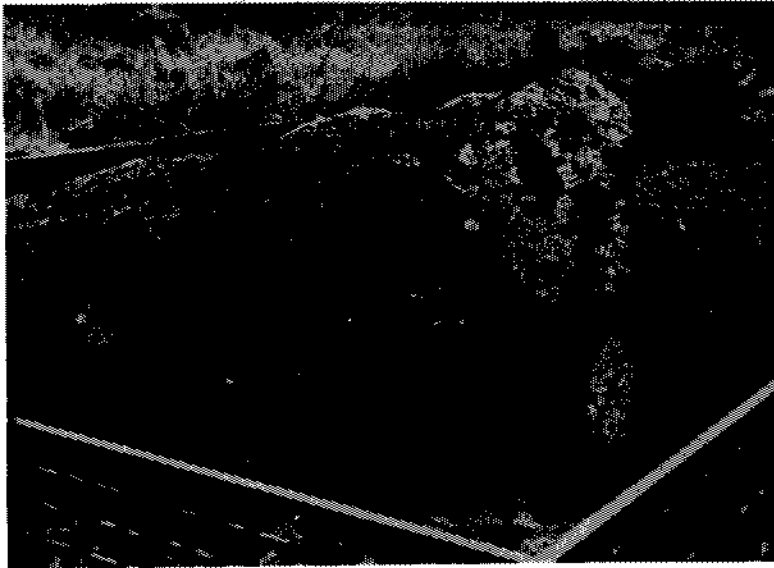
第19號 支石墓(北쪽에서)



第 20 號 支石墓(北西쪽에서)



第 21 號 支石墓(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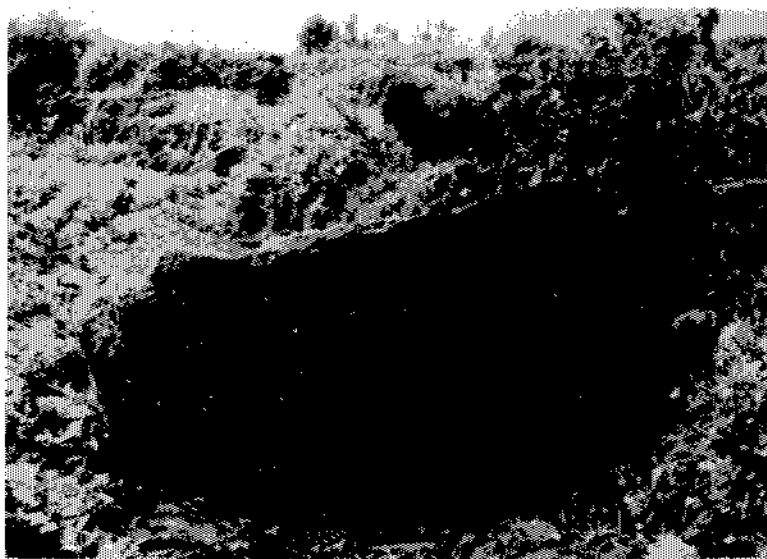
第 22 號 支石墓 (南東쪽에서)



第 23 號 支石墓 (東南쪽에서)



第 23 號 支石墓 (南쪽에서)



第 24 號 支石墓

로 말할 수 없으나 형태 및 구조의 변천으로 보아 ①에서부터 ⑦順으로 이어지는 계승성이 보인다. 그러나 이 各種類가 이 순서로 시기적으로 변화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異種의 同時期 共存도 생각할 수 있다.

Ⅲ. 出 土 遺 物

出土遺物の 대부분은 無文土器片으로 上石下部의 埋葬施設을 확인하는 중에 수습된 것이다. 주로 支石 안쪽 가까이에서 출토되며 그중의 일부가 埋葬部 한가운데서 나온다. 물론 이들 土器片은 後代에 교란된 浮土層이나 혹은 黑褐色 堆積層에서 대부분 나오지만 黃褐色 粘土의 生土層 上面에서도 多數 出土된다.

따라서 土器中에는 副葬品으로서 매장된 경우도 있고, 支石墓 築造時 혹은 一定한 儀禮에 의해 支石이 놓일 자리에 미리 깔았던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副葬品임이 확실한 유물로 第13號 支石墓의 例가 있다. 無文土器底部 完形 1點, 土製紡錘車 1點, 숫돌 1點이 그것으로 이들은 埋葬部 가운데에서 一括로 출토되었다.

土器로는 無文土器이외에도 일부 金海式土器片이 出土되었다. 이들 김해식토기가 後代의 혼입이 아니고 無文土器와 同時期에 사용된 것임은 支石墓 주변 遺物散佈地를 試掘해 본 결과, 表土層下 黑褐色 遺物包含層이 있고 이 층에서 無文土器片과 金海式土器片이 함께 나오므로 분명하다.¹⁶⁾ 자세한 것은 다음 章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이 章에서는 各 支石墓別로 出土遺物을 소개하겠다. 지면 관계상 無文土器片中 器腹部는 제외하고 器形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口緣部・底部만을 소개하였다.

16) 陸地部에서 金海式土器片이 出土되었다고 報告된 支石墓로 全南 潭陽 文學里 支石墓가 있다.
金元龍, “金海土器片을 내는 潭陽 文學里的 一支石墓”, 「美術資料」3, 1961, pp. 10 ~ 12.

1. 無文土器 口緣部 (圖 3, 4 참조)

胎土는 다음 底部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굵은 모래가 혼입된 赤褐色粘土가 주류를 이루며 전형적인 無文土器보다는 단단하여 燒成度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口緣部形態는 外反과 直立이 대부분으로 따라서 이러한 높은 堅度와 아무런 장식이 가해져 있지 않은 外反 및 直立口緣의 형태로서 末期無文土器임을 알 수 있다.

直立口緣경우는 胴體部에서 거의 끝까지 올라가지만 다소 內傾 혹은 外傾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각기 內反 혹은 外反口緣으로 볼 정도로 기울기가 심한 것이 아니므로 直立口緣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대체로 두께는 0.8~1.2 cm 정도이며 口徑은 13~27 cm범위이나 20 cm내외가 가장 많다. 器形은 거의가 深鉢形인 것으로 推定되며 일부 귀얄 비슷한 도구로 표면을 손질한 것이 있다.

外反口緣경우는 長頸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없고 外反度도 작은 편이며 아래로 연장되는 胴體線으로 보아 器腹部가 심하게 팽창되는 항아리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直立口緣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口脣部 斷面은 대체로 方形을 이루는 것과 三角形을 이루는 것 두종류가 있다. 두께 역시 0.8~1.2 cm이고 口徑은 11~34 cm로 역시 20 cm내외의 것이 가장 많다.

2. 無文土器 底部 (圖 5, 6 참조)

無文土器 底部는 形態로 보아 크게 네종류로 區分할 수 있다.

(1) 그릇 안쪽바닥이 오목하고 底徑이 5 cm내외로 컵모양을 연상케 하는 底部 ~ ① ② ③

- (2) 바닥두께가 2.5 ~ 3 cm로 두꺼우면서 底徑이 7.5 cm내외의 底部 ~ ④
⑤ ⑥
- (3) 바닥두께가 1 cm내외로 얇은 편이고 底徑이 9 ~ 13 cm가 主流를 이루는 底部 ~ ⑦ ~ ⑭
- (4) 바닥두께가 2 cm정도이고 底徑이 15 ~ 20 cm가 主流를 이루는 비교적 큰 底部 ~ ⑮ ~ ⑳
- 그리고 底部는 平底인 것과 안쪽으로 틀리어 가장자리가 굽모양으로 된 底部 두종류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후자는 앞서의 (3)器形에 많은 예가 있다.
- 한편 底部成形時 胴體와 결합되는 底部 측면이 축약된 예가 있고 그대로 밋밋하게 올라간 예가 있는데 (2)器形전부와 (3)(4)器形中 數點이 전자에 속하는 樣相을 보인다.

3. 金海式土器 (圖7 참조)

金海式土器片이 出土한 支石墓는 第 4·9·13·21 號로 9號의 것은 胴體部이고 그외는 底部이다.

모두 정선된 粘土를 胎土로 이용한 灰青色硬質系이며 胴體部는 器表에 굵은 格子文이 施文되어 있고 底部경우는 회전판을 이용하여 成形한 흔적이 보인다.

두께는 0.5~0.9 cm로 無文土器와는 대조적으로 얇은 편이다.

이 金海式土器片은 이곳 無文土器와 同時期에 共存해 있음은 後述할 바와 같다.

4. 其他 出土品 (圖7 참조)

(1) 圓板形 土製品

21號 支石墓에서 출토한 것으로 直徑 0.6 cm, 두께 0.8 cm의 크기를 가진 圓

板形土製品이다. 土器器腹部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용도를 알 수 없는 土製品은 春川 中島¹⁷⁾ 屯內遺跡¹⁸⁾에서도 똑같이 출토한다(各報告者에 따라서 紡錘車 未成品과 시루구멍마개로 추정하고 있다).

(2) 黑色土器 뚜껑꼭지片

2號 支石墓 出品으로 灰褐色의 고운 瓦質胎土에 表面만 黑色인 것으로 이와 같은 土器는 역시 末期無文土器·金海式土器와 함께 서울 江東區 風納洞 遺跡에서 발견된 바 있다.¹⁹⁾ 대체로 前代 青銅器時代 後期の 黑色磨研土器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²⁰⁾ 꼭지모양은 變形된 寶珠形을 하고 있다.

(3) 無文土器 底部完形

다음 (4)·(5)遺物과 함께 13號 支石墓 副葬品으로 모래가 혼입되어 있는 점은 다른 無文土器와 같으나, 다소 胎土가 精選되고 그릇 안쪽 表面을 물칠하여 매끄럽게 되어있으며 손자국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바닥두께는 2cm, 底徑 12.7cm로 그릇 바깥쪽 바닥면은 겹겹이 그을려 있고 안쪽은 赤褐色系統의 색깔을 띠나 赤色이 짙어 副葬容器라는 인상을 준다.

바닥은 평평한 편이면서 안쪽으로 약간 들러있고 원래는 鉢形이었을 것이나 의도적으로 접시모양처럼 만들기 위해 깨어낸 자국이 胴體部로 연결되는 部位에서 確認된다.

17) 李健茂·李康承·韓永熙·金載悅, 「中島: 進展報告 I」, 國立博物館 古跡調查報告 12, 1980.

18) 元永煥·崔福奎, 「屯內」, 江原大博物館 遺蹟調查報告 1, 1984.

19) 이 風納洞遺蹟에서도 寶珠形꼭지가 발견되고 있으며 金元龍은 이를 '風納里 黑陶' 라고 命名하였다.

金元龍,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서울大 考古人類學叢刊 3, 1967.

20) 金元龍, "所謂 瓦質土器에 對하여 : 原三國考古學上的 新問題", 「人文學報」 99·100, 1983, pp.1 ~ 21.

(4) 土製紡錘車

直徑 3.7 cm, 두께 1 cm로 비교적 두툼한 편으로 가운데에 한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 가운데 구멍과 周緣을 연결하는 굵은 홈줄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5) 숫 돌

전체모양이 잘 다듬은 長六面體로서 玄武岩製이다. 가벼우며 사용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副葬用으로 製作한 것이 아닌가 한다.

길이 11.5 cm, 폭 3.9 cm, 두께 2 cm.

IV. 編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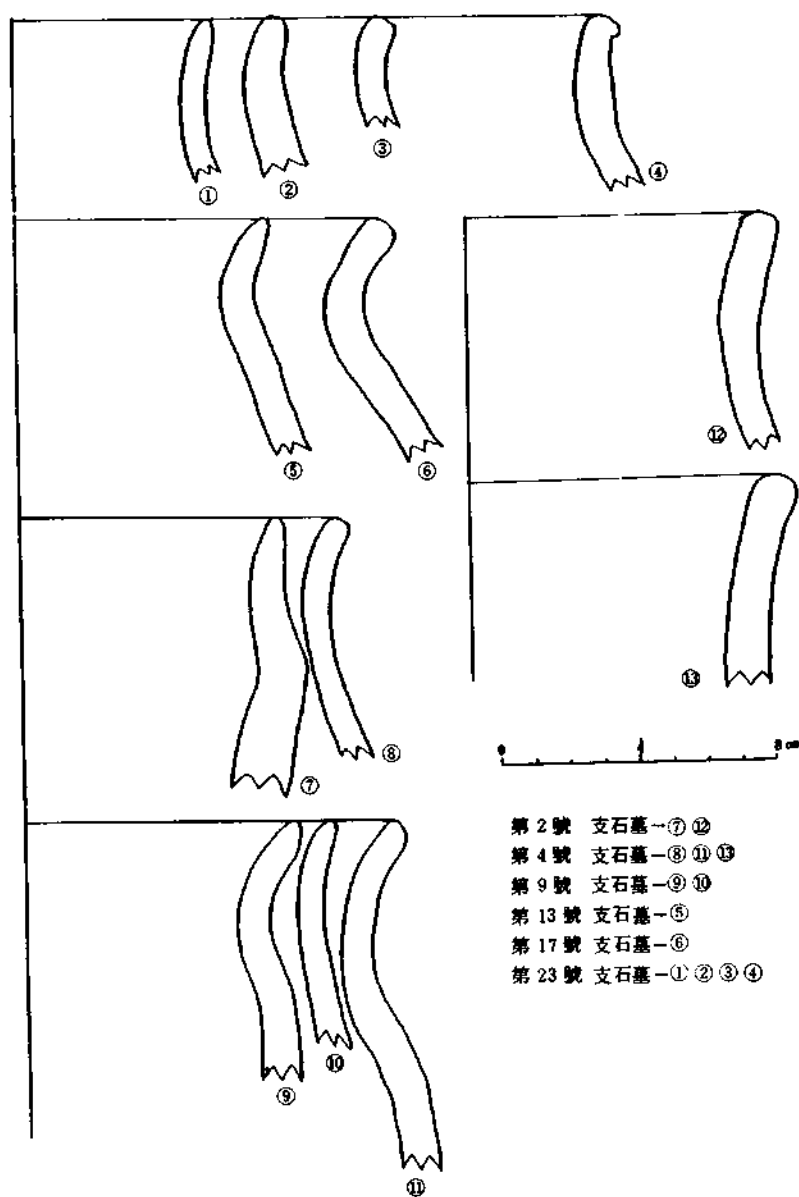
韓半島 支石墓가 대체로 無文土器時代 혹은 青銅器時代에 속하는 墓制라는 데는 학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上限과 下限年代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가 나오고 있다. 尹武炳은 青銅遺物이 出土되지 않은 支石墓를 青銅器時代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新石器時代末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下限에 대해서는 과거 三上次男와 같은 日人學者는 大邱市 大鳳洞 支石墓의 下部石室이 豎穴石室 古墳과 형식상 연결된다 하여 A.D. 4C경의 三國時代初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²²⁾ 金哲峻도 濟州道 支石墓中 三國時代 橫穴式 石室墳과 비슷한 형식이 있음을 이유로 이 濟州島 例처럼 한반도 支石墓中 最末期것은 三國時代 A.D. 5C 말까지 내려온다고 보았다.²³⁾

그러나 支石墓의 築造時期를 결정하는 데 標識역할을 하는 것은 土器를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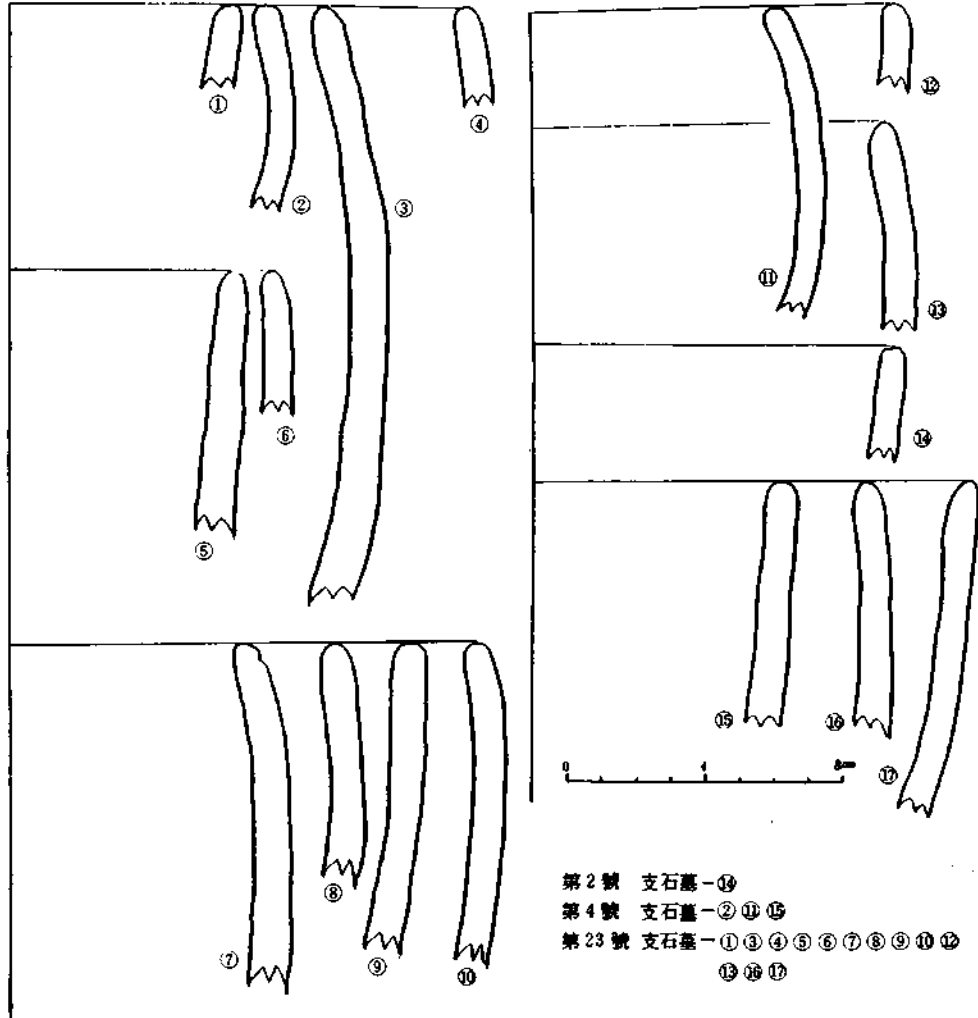
21) 金元龍外, 「青銅器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化文庫 89, 1977, pp. 40 ~ 41.

22) 三上次男, “大邱의 支石墓와 古代南鮮社會”, 「滿鮮原始墳墓의 研究」, p.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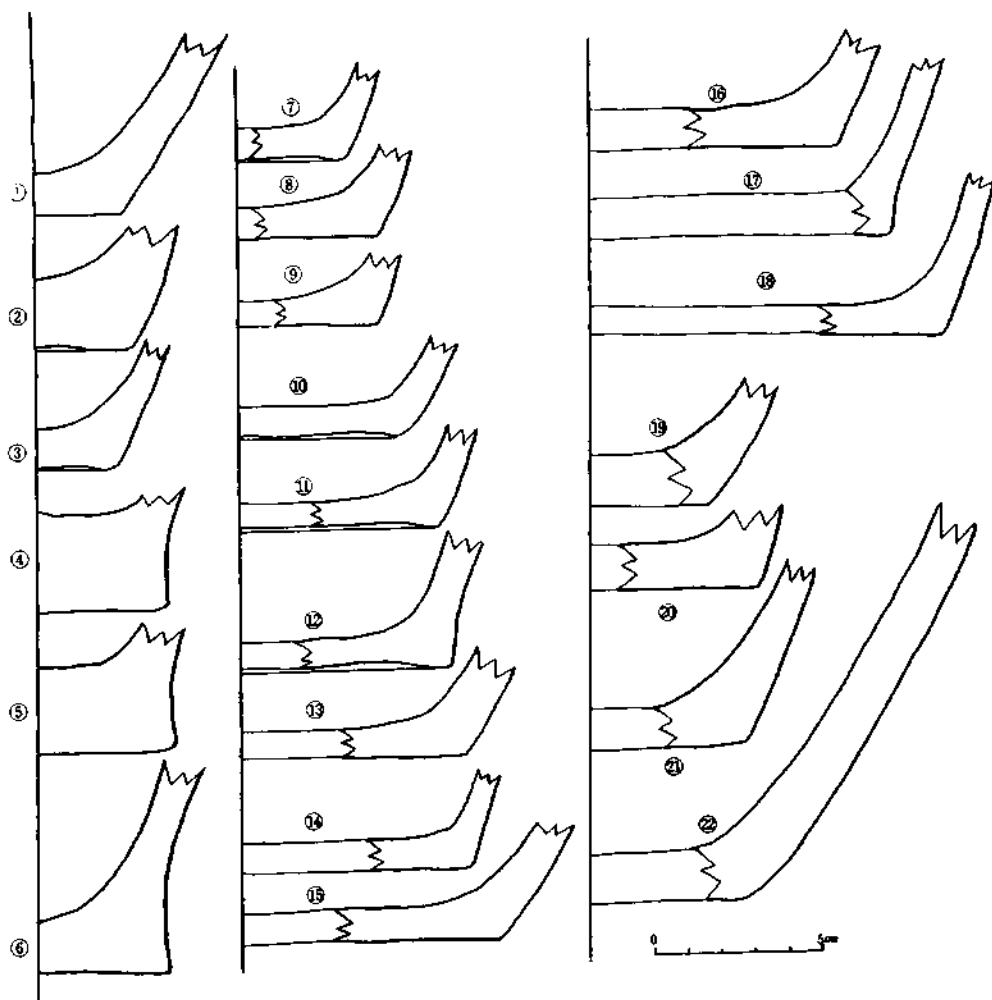
23) 前掲報文 (1).



〈圖 3〉無文土器 口緣部(外反)



〈圖4〉無文土器 口緣部(直立・內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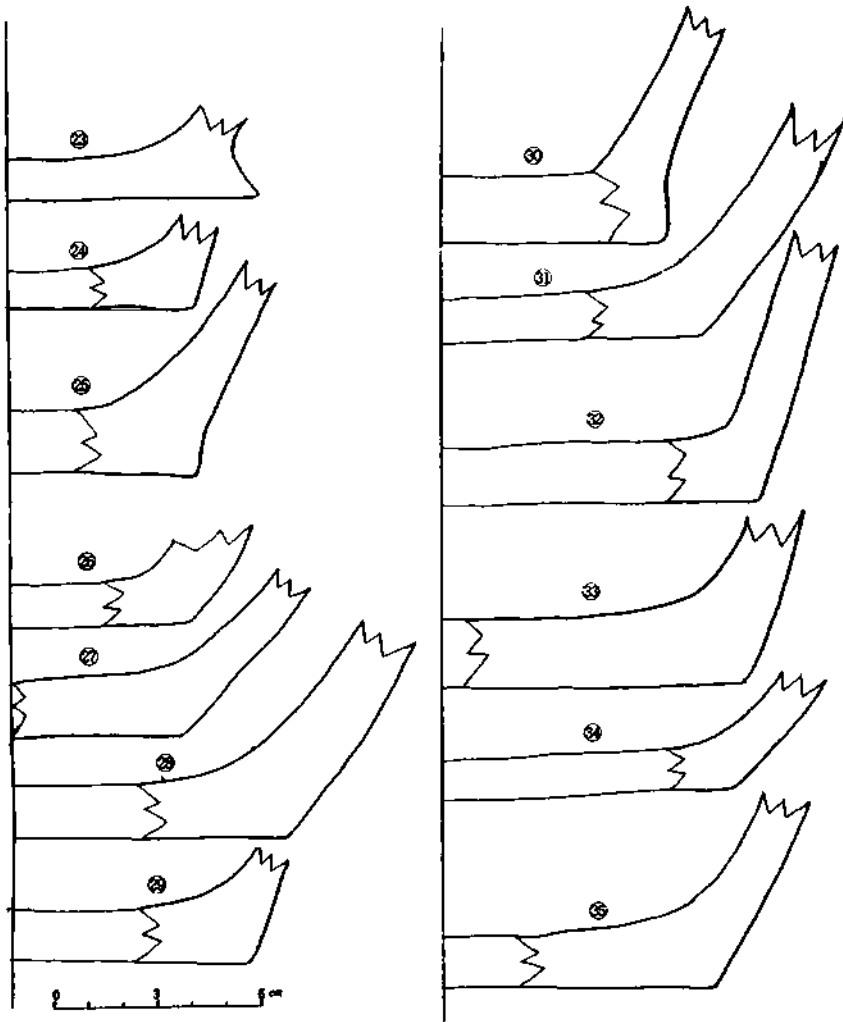
第2號 支石墓-⑧ ㉘

第4號 支石墓-① ⑤ ⑩ ⑬ ⑮ ⑰ ⑳ ㉑ ㉒ ㉓

第9號 支石墓-③ ④ ⑥ ㉔ ㉕ 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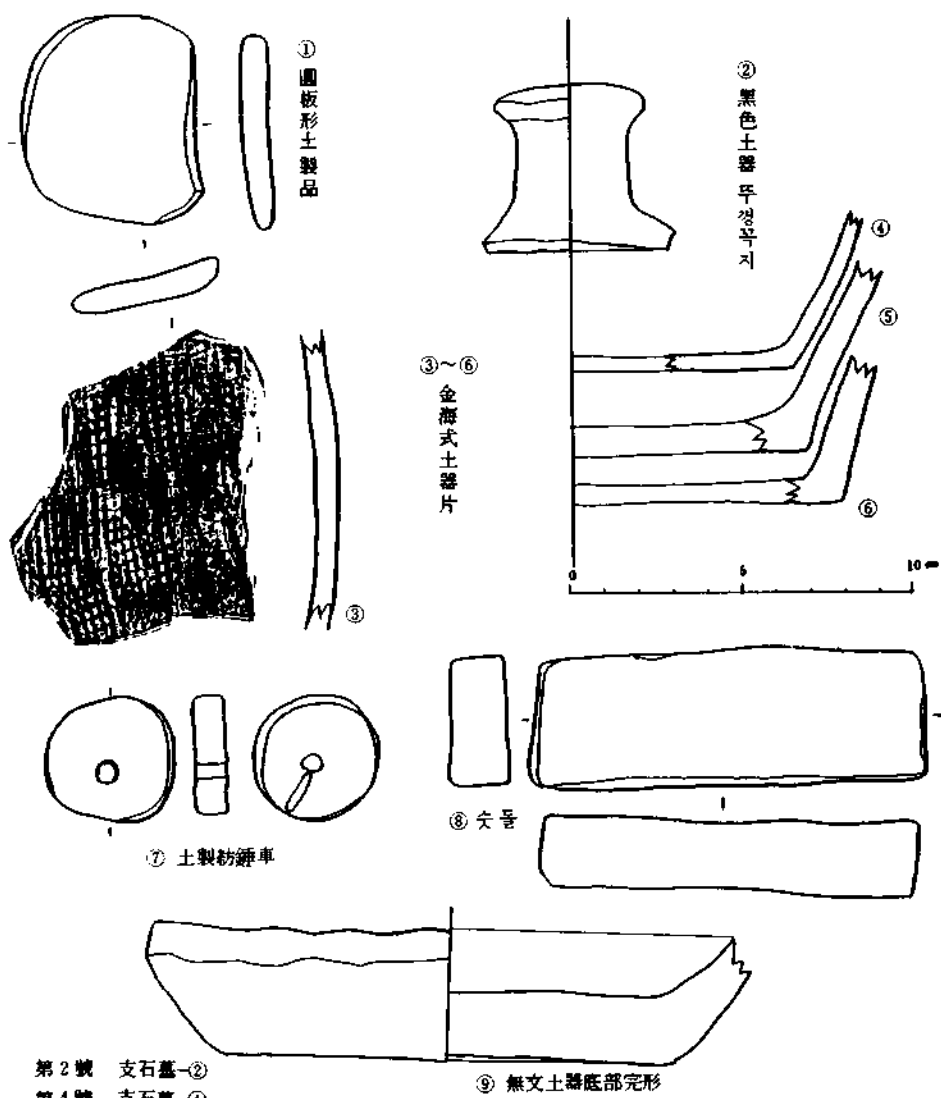
第13號 支石墓-⑨ ⑫ ㉗

〈圖5〉無文土器 底部 I (①~㉗)



第 18 號 支石墓-⑱
第 21 號 支石墓-④ ⑮ ⑳
第 23 號 支石墓-② ⑥ ⑦ ⑩ ⑫ ⑬ ⑭ ㉑ ㉒ ㉓

〈圖 6〉無文土器 底部Ⅱ(㉔~㉙)



〈圖 7〉其他出土遺物

한 出土遺物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支石墓內에서 櫛文土器가 出土된 적이 없고 대부분 無文土器系統의 유물이 나오며 일부 金海式土器片을 내는 支石墓가 보고되고 있다.²⁴⁾ 따라서 한반도 支石墓는 無文土器時代에서 金海式土器時代初에 이르는 장기간에 築造되어 왔으며, 다만 지역에 따라 빠르고 늦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 絕對年代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金元龍은 대체로 北方式支石墓는 北韓에서 B.C. 3C 경 소멸하고 南方式은 서력기원 전후경까지 존속하였다고 본다.²⁵⁾

濟州道 支石墓에 대한 구체적인 編年은 1959년 金哲煥이 논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初期支石墓는 전형적인 南方式으로 기원전후한 시기에, 앞서 말했듯이 末期 것은 三國時代中葉의 百濟橫穴石室墳과 구조상의 유사함을 들어 5C末에 각기 比定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學界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비록 濟州道 支石墓가 특수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三國時代 축조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되었으며 이는 筆者에 의한 光令里 支石墓群 出土遺物調査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光令里 支石墓群에서 出土한 遺物의 대부분은 無文土器이며 일부 金海式土器片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無文土器의 대부분은 赤褐色粘土성분의 胎土에 굵은 모래가 혼입되고 두께가 비교적 두꺼울 뿐만 아니라 堅度도 높다. 따라서 燒成時 온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는 無文土器末期型式으로 이는 과거 서울 江東區 風納洞에서 金海式土器等과 함께 出土한 이른바 風納洞 硬質無文土器와 같다.²⁶⁾

이처럼 末期無文土器와 金海式土器가 共伴하는 예는 같은 漢江上流 地域인 京

24) 前掲論文 (86).

25) 金元龍, 「韓國 考古學 概說」, 1977, p.112.

26) 前掲報告書 (19).

畿道 加平郡 馬場里²⁷⁾·梨谷里遺跡,²⁸⁾ 江原道 春川市 中島²⁹⁾·屯內遺跡³⁰⁾에서 볼 수 있다.

光令里遺跡에서 無文土器와 함께 채집되는 金海式土器片이 時期的으로 共存한 사실은 筆者의 이 地域 試掘調査에 의해 判明되었다. 즉 第19號 支石墓와 22號 支石墓 中間 發은 多數의 無文土器·金海式土器·磨製石器類 및 土製紡錘車·숫돌·礮石類가 散布되어 있는 遺物散布地이므로 이 一帶의 層位狀態를 알아 보기 위해 2m×2m의 Test Pit를 5個 區劃 發掘하였다. 그 중 2個 Pit는 20 cm 내외의 黑褐色 耕作土層(遺物포함된 후대 교관층) 밑에서 바로 黃褐色粘土의 生土層이 노출됐다. 반면 3個 Pit는 30~50 cm 두께의 暗黑褐色의 木炭包含層이 드러나고 이 속에서 數點의 유물이 나왔다. 이 遺物 包含層 아래 또한 黃褐色 生土層임은 앞서와 같다. 바로 이 흑갈색 유물포함층에서는 無文土器片과 金海式土器片이 같이 나왔으며 따라서 이곳 支石墓內에서 발견된 金海式土器片 역시 無文土器와 同時期 것임은 분명하다.

光令里一帶에는 직경 3 km 내의 범위에 많은 遺物散布地가 分布하며 이곳에서는 土器類와 함께 多數의 磨製石器類가 筆者에 의해 採集되었다. 그 內容을 보면 始刃石斧·柱狀石斧·石鑿 및 有溝石斧 등 후기 無文土器時代遺跡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다 (이 磨製石器類에 대해서는 따로 報告할 예정임).

그러므로 이들 出土遺物을 綜合해볼 때 光令里 支石墓 築造時期는 앞서 열거한 漢江流域의 여러 遺跡과 마찬가지로 ① 金海式土器와 함께 無文土器에의 依存 ② 傳統的인 磨製石器의 殘存으로 無文土器로부터 金海式土器에로의 過渡期에 해당한다고 보아진다.

그 絕對年代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漢江流域의 여러 遺跡에 대한 편년이 B. C. 2 C 초에서 A. D. 2 C 까지 걸쳐 있어 대체로 光令里경우도 이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馬場里 I 期文化처럼 鐵器보다도 磨製石器에 대한 의존도가

27) 金元龍, “馬場里冶鐵住居址”, 「歷史學報」50·51, 1971, pp.111~137.

28) 崔茂藏, “加平郡 梨谷里 鐵器時代 住居址發掘報告書”, 「建國大人文學論叢」12, 1979, pp.113~195.

29) 中島遺跡에 대해서는 國立中央博物館에서 1980~1983년에 걸쳐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12~15로 進展報告 I~IV를 내놓은 바 있다.

30) 前掲報告書 (18).

높고 金海式土器片이 소수이므로 보다 이른 단계의 것으로 추정된다.³¹⁾

그리고 濟州道地方에의 金海式土器의 파급은 韓半島 南部地方과 마찬가지로 B.C. 108년 漢郡縣 설치에 따른 漢文化의 충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와 관련, 대체로 B.C. 1 C경에서 기원전후한 時期에서 同支石墓年代의 一端을 찾아야할 것이나 보다 확실한 編年은 今後의 研究課題이다.

V. 光令里支石墓群의 性格

光令里일대 支石墓가 外部的 形態로 볼 때 筆者의 任意가 많으나 대체로 7 類型으로 구분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同一地域의 이러한 形態의 多樣함은 各形態의 시기적 공존도 물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無理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支石墓群에서 集團的인 性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다른 시기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屍身이 놓이는 頭向 혹은 枕向이며 이는 支石墓에 있어 上石의 長軸方向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기왕의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다.

枕向의 集團性을 보여주는 예를 들면 1975년 榮山江流域 댐工事로 發掘調査하게 된 全南 羅州郡 茶道面 板村里에 타원형으로 群을 이루고 있는 13基의 支石墓(1基는 調査 未함)는 전부 東~西 長軸의 地下 石室方向을 갖고 있으며³²⁾ 1981년 調査한 全南 羅州郡 二西面內에 月山里 支石墓群은 南~北方向, 寶山里群은 東~西, 同 獐鷲里群은 南~北, 滄浪里群은 東~西方向으로 각각 통일되고 있다.³³⁾ 또한 1983년에 발굴조사된 全南 康津郡 永福里 支石墓群에 있어서도 調査된 11基 전부 石室이 南~北 장축임을 보여주고 있다.³⁴⁾

31) 前掲論文 27.

32) 崔夢龍, “大草·潭陽댐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 「榮山江水沒地區 遺蹟發掘調査報告書」, 1976, pp.1 ~ 151.

33) 李榮文, 「同福담水沒地區 文化·遺蹟調査報告書: 先史遺蹟調査篇」, 1981, pp.13 ~ 32.

34) 徐聲勳·李榮文, 「康津永福里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 1983.

이러한 枕向의 차이는 한편으로 時期的인 차이에서 연유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先史時代 墓制에 있어 東枕 또는 南枕이 주류를 이루고 三國時代에는 北枕이 主流를 이루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同一地域의 同一墓制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形態는 변하나 枕向은 異集團 또는 異文化의 流入이 없는 이상 傳統的으로 保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光舍里支石墓群에 있어 枕向 즉 上石의 長軸方向의 양상이 분포위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결과 地域的으로 서로 인접하고 南~北 長軸에 가까운 第1~9號 支石墓로 이루어진 第1群과 역시 南~北 장축이나 1群과 거리가 떨어진 第10~16號의 第2群, 그리고 東~西 혹은 北東~南西 長軸에 근접한 17~21號 支石墓의 第3群, 南~北 長軸은 1·2群과 마찬가지로 이와는 떨어진 22·23號의 第4群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4號는 제외). 이로 미루어 光舍里 支石墓 住民社會는 많으면 4個, 적어도 2個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支石墓를 築造하는 데 필요한 石材를 채취한 場所로 보이는 곳이 앞서 第1支石墓群의 東南쪽 약 300 m 떨어져 발견되었다. 이 採石場에는 斷崖上에 岩盤이 노출되고 곳곳에 採石을 위한 坑 痕이 확인되었으며 주변에는 大形塊石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주위에 採石場이라 생각되는 곳은 이 하나뿐으로 光舍里一帶 모든 支石墓가 여기서 採取한 石材를 운반하여 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곳에서 支石墓 上石은 橫木을 깔고 지렛대를 넣어 밀고 앞에서는 밧줄을 이용하여 묶어 끄는 방법으로 운반했을 것이다.

第10號 支石墓 경우 上石은 大략 $3.5 \times 2.5 \times 0.5$ m로 (上石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평균적인 규격을 취하였음) 大략 $4.5m^3$ 로서 비중 1.5로 환산하면 7 t의 무게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대체로 평균 100 kg정도가 成人男子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설을 따른다면 이 支石墓 上石의 운반에 70명의 成人男子가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평균 4~5인 정도로 구성된 생물학적 가족에서 1인의 成人男子가 있다 가정하면 최소한 이 당시 300명의 人口가 光舍里一帶에 거주했을 것으로 推定되는 것이다.

그리고 支石墓築造와 같은 大役事가 있을 때 인접한 몇개의 마을 또는 氏族이 일종의 「두레」 같은 協同組織體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추정³⁵⁾ 앞서 보듯 2~4個의 小集團으로 구성된 光令里支石墓社會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두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결합할 때는 일종의 精神共同體이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모여들 때는 村落과 같은 地域共同體이며 「徒」로서 三韓社會에 이미 존재했음은 李丙燾가 지적한 바와 같다.³⁶⁾ 그리고 서로 인접한 촌락의 「두레」 혹은 「徒」는 그 탄생의 先後를 따져 「형두레」 「아우두레」의 구별이 있으며 濟州道에 있어서 三姓神話中 高乙那·良乙那·夫乙那가 각기 設村한 「第一徒」「第二徒」「第三徒」가 이 좋은 예임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대체로 기원전후한 시가 三韓時代에 있어서 「두레」와 같은 原始共同體의 性格은 光令里支石墓社會에 대해서도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光令里 대부분의 支石墓 上石에는 무수한 性穴(Cup-mark)이 있다. 性穴이 豊饒·多産을 기원하는 呪術的 내지 原始信仰的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아직 명백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光令里의 경우에 性穴은 비단 支石墓 上石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보이는 (필자는 2군대를 확인하였음) 돌이 1m내외의 塊石에도 性穴이 새겨져 있었다.

이러한 性穴에 그 크기와 1개부터 60여개에 이르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몇가지 類型이 보이며 그러한 類型의 差異가 의미하는 바는 얼른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性穴을 새기는 儀式 또는 風習이 성행했다는 증거는 道內 他地域 支石墓에서는 보기가 힘들며(다만 吾羅洞·龍潭洞一帶 支石墓에서 數基의 例가 보일 뿐이다) 따라서 光令里 支石墓社會의 특수한 一面을 엿볼 수 있다.

한편 副葬品으로 확실한 것은 13號 支石墓에서 발견된 土器底部 完形 1點 土製紡錘車 1點, 숫돌 1點을 들 수 있는데 이로써 性別을 가린다면 紡錘車의

35) 池健吉, “支石墓社會의 復原에 관한 考察 : 築造技術과 葬制를 中心으로”, 「梨花史學研究」13·14, 1984, pp.1~6.

36) 李丙燾, “마을과 두레의 起源과 名稱”, 「韓國古代社會文化」, 瑞文文庫 71 所收, 1975, pp.20~30.

例로 보아 被葬者는 女性이라 볼 수 있을 것이나 확인하기는 어렵다.³⁷⁾

VI. 結

정식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쩌면 今後의 면밀한 조사에 의해 수정될지도 모를 筆者의 意見을 지금까지 서술해왔다.

이는 濟州道에 支石墓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4半世紀가 지나면서 그에 대한 정식학술조사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느끼고 차재에 이에 대한 關心과 研究方向을 이끌기 위한 他山之石으로 감히 몇가지 주장을 내놓은 결과이다.

그러나 光晷里群을 비롯한 濟州道 支石墓는 한반도 전체 支石墓中 末期에 속하는 것으로 그 형태 또는 構造에 있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필자의 연구에 의해 다소나마 확인되었다고 보아진다.

앞으로는 정식발굴조사에 의해 특히 型式分類와 그 구체적인 先後關係가 분명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당대 支石墓社會의 性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이 조그만 연구를 위해서 濟州大 史學科 教授님과 學生들의 도움 및 助言을 해 주신 서울大 崔夢龍교수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이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37) 崔夢龍, “全南地方支石墓社會와 階級の 發生”, 『韓國史研究』 35, 1981, pp.1 ~ 14.